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 2016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추경예산을 4.3조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국세수입은 행정부 예산안(241.8조원)을 2.5조원 상회하는 244.2조원으로 전망된다.

2016~2020년간 중기 국세수입 증가율은 금리인상 가능성,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위험 등을 감안하였을 때 행정부 예측치(4.5%)보다 낮은 3.9%로 전망된다.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은 민간소비, 수출입 등의 경기적 요인보다는 자산시장의 호조 등의 요인으로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사항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올해와 내년의 국세수입 및 2016~2020년의 중기 국세수입을 전망하여, 그 결과를 행정부와 비교하였음.

또한 최근 세수개선의 주요 원인과 국세수입간의 관계를 쟁점으로 분석하였음.

I. 2016년 및 2017년 국세수입 전망

II.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III. 분석 1. 자산시장과 국세수입
탄성치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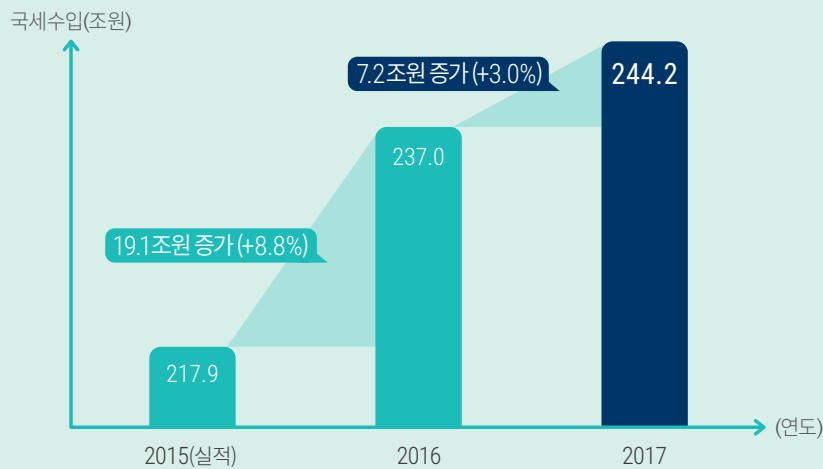
분석 2. 법인세 추이와 변동 원인

I. 2016년 및 2017년 국세수입 전망

1. 2016년 및 2017년 국세수입 전망

2016년 국세수입은 2015년 대비 19.1조원(8.8%) 증가한 237.0조원으로 예상되어, 추경예산을 4.3조원 초과할 전망이다. 2017년 국세수입은 2016년 대비 7.2조원(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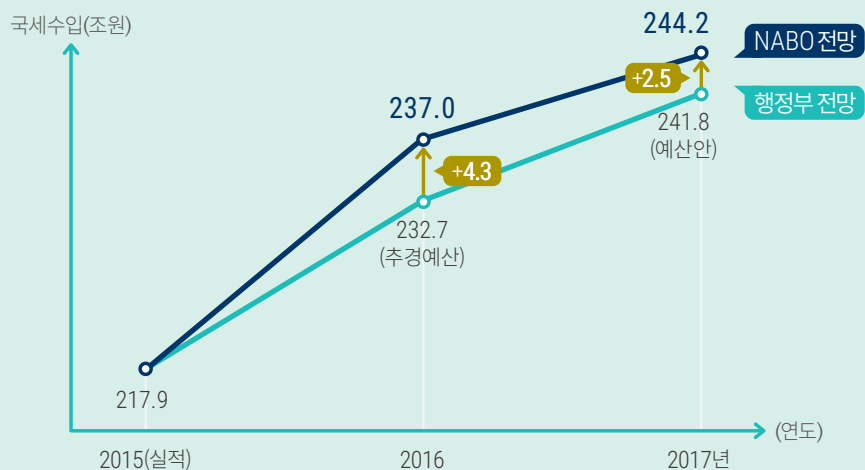
2016~2017년 국세수입 전망(NABO)



2.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NABO는 2017년 세수 전망의 바탕이 되는 2016년 국세수입을 행정부보다 4.3조원 높게 보고 있으나, 2017년 경상성장률은 행정부보다 0.2%p 낮은 3.9%로 전망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NABO가 전망한 2017년 국세수입은 행정부 세입예산안보다 약 2.5조원 높게 나타남.

201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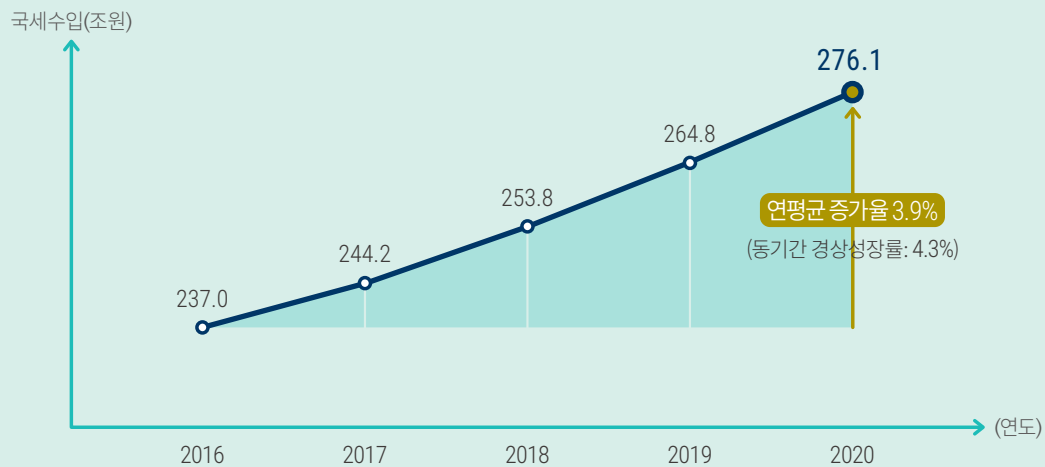


II.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1.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2016~2020년의 5년간 국세수입은 2016년 237.0조원에서 2020년 276.1조원으로 연평균 3.9%의 증가가 예상됨. 이와 같은 전망은 향후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중기 경상성장률 전망(4.3%)보다 낮은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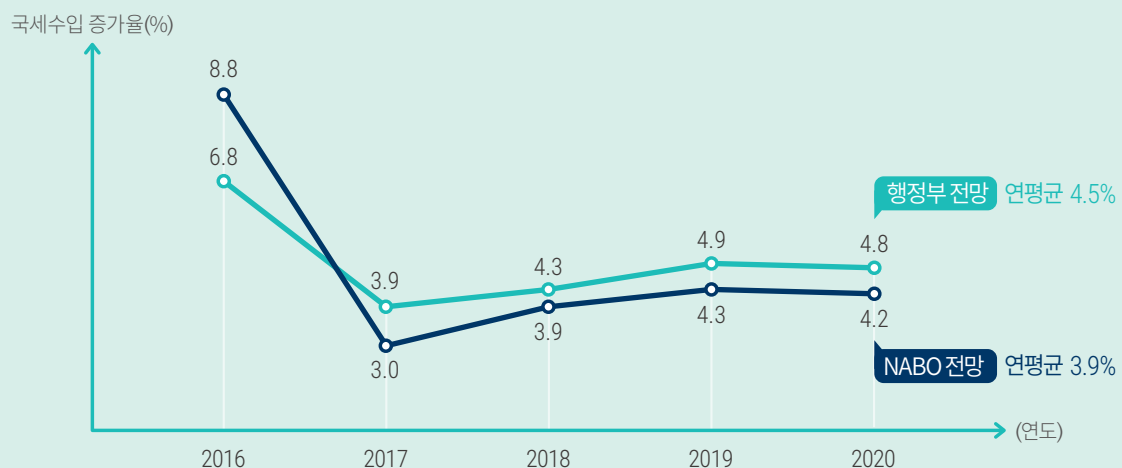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NABO)



2. 2016~2020년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NABO의 2016~2020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3.9%)은 NABO의 중기 경상성장률 전망(행정부보다 0.5%p 낮은 4.3%) 등이 반영되어 행정부 예측치(4.5%)보다 낮게 나타남.

2016~2020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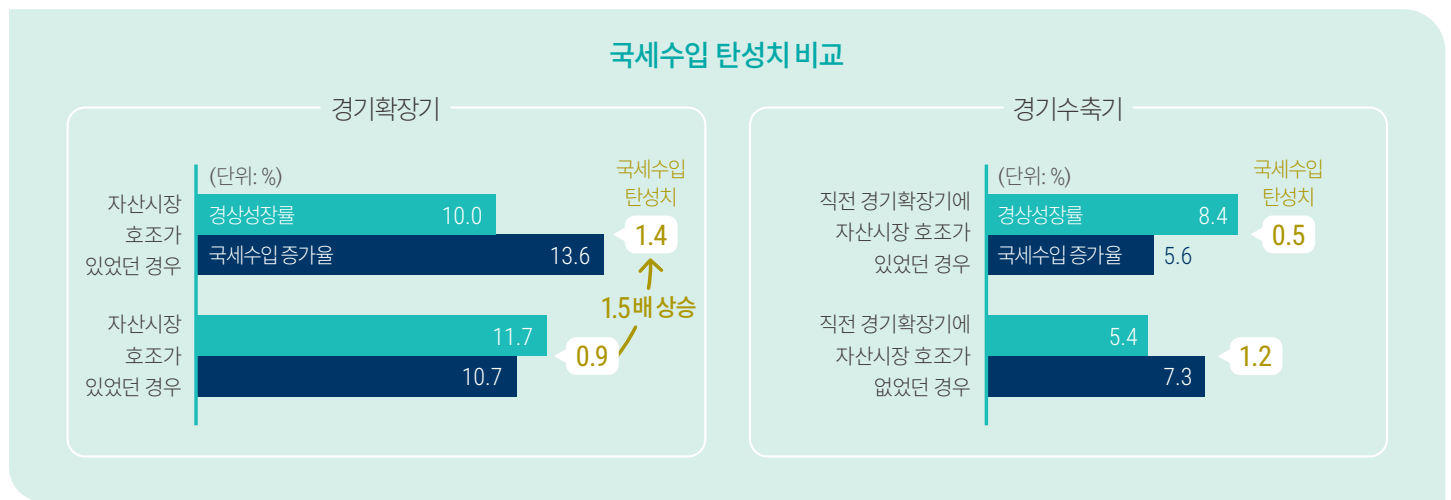


III.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2016년 국세수입은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4%(20.8조원)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아래에서는 세수 개선의 주요 원인인 자산시장 호조 및 법인실적과 국세수입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함.

분석1.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자산시장과 국세수입 탄성치*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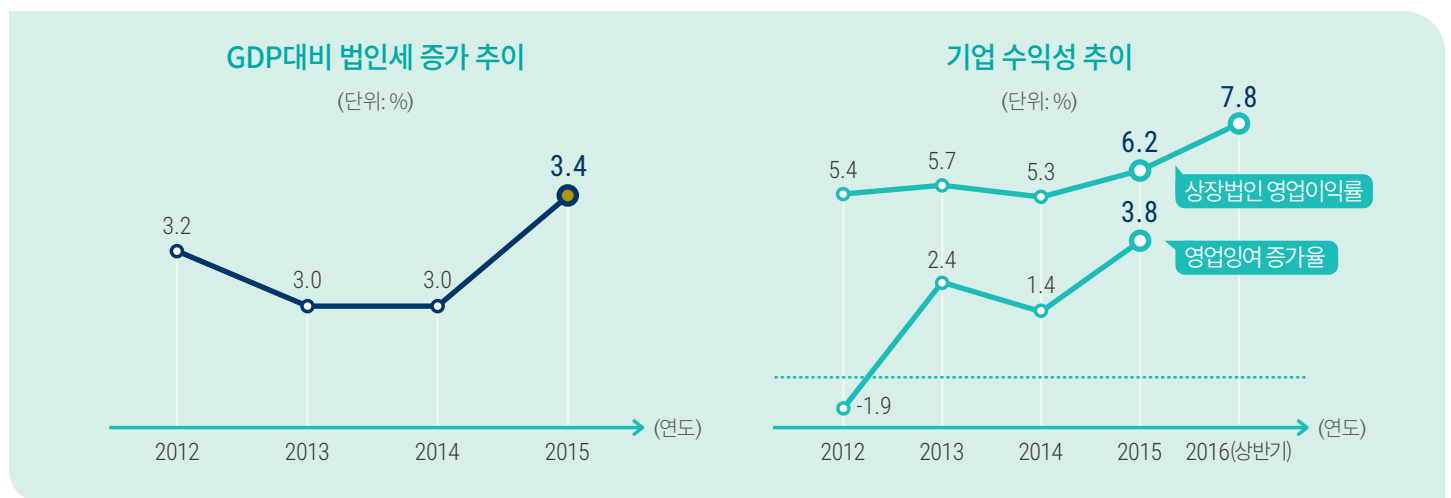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호조가 있는 경기 확장기에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자산시장 호조가 없는 시기보다 국세수입 탄성치가 1.5배 상승함. 반면, 자산시장 호조가 있는 경기확장기가 수축국면으로 전환되면 국세수입 탄성치는 성장 둔화 속도보다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



*국세수입 탄성치: 국세수입 증가율/경상성장률.

분석2. 최근 법인세 추이와 변동 원인

2015년 이후의 법인세수 증가는 이 시기에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 크며, 2013년 개정된 세법(최저한세* 14%→16%로 인상 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



*최저한세: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세감면을 제한하는 제도.